

瞻星臺의 景觀認識論的 解釋

曹世煥

慶州大學校 空間環境學部 環境造景學 專攻

On the Matter and Form of the Chumsungdae

Cho, Se-Hwa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ongju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I tried to interpretate the matter and form of Chumsungdae(pagoda for watching the stars), which has been mainly assumed as an facility for astronomical observation of ancient Shilla dynasty, located on Kyongju, Korea . Basically, I took the thoughts of the place and the theory of cognition on landscape as a research tool, and the research was undertaken through the surveying the physical surroundings of chumsungdae and studying the references related to a myth, thoughts, and a tale of shilla era. This research was anticipated to find out the various symbolic meanings and functions of Chumsungdae and its place, which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view of scientific uses of it.

The matter and form of the Chumsungdae realizes the archetypal form of the well and meanings of petition for agricultural abundance, leading to a wishing for political stability of the nation, especially an authority of a reign of the queen, named Sun-duk who is the first one in Shilla Dynasty. The Chumsungdae was located on the very sacred place surrounded by the tumulous and Kyerim forest which was birth and death place of the founder and king of a family of Kim. It does mean that the Chumsungdae was very sacred work, and made place with combination of meaning above mentioned and natural environment.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the neighboring area of the Chumsungdae be restored with the forest as an archetype of old picture and environment of Kyerim.

Key Words : Matter and Form. Place. Well. Agriculture. Petition

I. 서론

국보 제 31 호로 지정된 경주 인왕동 소재 첨성대(瞻星臺)는 삼국유사에 '신라 제27대 왕인 선덕여왕조에 첨성대를 만들었다' 고 하는 기록만이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첨성대의 구체적인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학설이 분분해 왔다. 더구나 삼국사기에는 첨성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더한층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첨성대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별을 바라보는 대(臺)' 라는 뜻이다. '별을 바라보는 것' 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천문관측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첨성대가 천문관측대라는 설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은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듯 첨성대에 대한 의견이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는 이유는 고대에 있어서 별의 의미는 정치와 관계가 있다(網干善教, 1996)고 함으로써 첨성(瞻星)에 대한 의미 해석의 차이와 첨성대의 형태적 특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첨성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 왔다. 첫째는 천문관측의 기능이라는 전제하에 첨성대의 형태 분석을 통해 기능을 증명하는 과학사적인 접근이고, 둘째는 첨성대가 오늘날의 천문관측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첨성대가 지니고 있는 의미 또는 상징적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접근이다. 이들 연구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천문관측대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하나의 대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수록 그것의 본질은 서로 얽혀있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된 조합(정기호, 1991)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온 논의 그대로 첨성대 역시 그 구조 및 형태 및 입지상의 특성으로 볼 때 그 만큼의 다양한 의미가 깃들여져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첨성대의 천문관측 기능 외적인 상징적 기능과 의미를 밝히는 방향에서 출발하되 그에 대한 기존의 연구 접근 방법¹⁾과는 다르게 경관인식론적 해석 방법을 통해 첨성대가 지니는 복합적이며 상징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하는 연구의 틀로서 경관인

식론이란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경관에는 인간의 개념체계 내에서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로서의 내재요소(내용)와 그 내용에 걸 맞는 형식으로서의 외형요소(형식)가 있으며, 이것이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독특한 경관과 장소성을 형성한다(정기호, 1986 ; 1991)는 논리구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인간과 자연의 공존적 관계는 일정한 개념체계를 통하여 실제 공간상에 구체화되어 나타나며, 인간이 구성하는 취락이나 건축 등과 같은 경관요소들이 실제 공간상에 구체화되는 것은 바로 자연요소에 제 정신적·물리적 인간의식이 투과된 결과이며, 이것은 그냥 존재하는 자연상태의 경우 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경관을 형성하는 인간-자연의 매개체로서의 개념체계는 신화, 풍수, 민담, 설화, 등과 같은 틀로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 인간이 형성한 경관은 그와같은 그 시대의 관념체계를 통해 인식·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관인식론적 논리구조 아래 첨성대와 같은 독특한 형식의 조영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분히 발현코자하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 부합되는 형태와 입지 여건을 택하게 마련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은 첨성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첨성대와 관련된 신화와 민담, 토착신앙과 같은 매체에 관련된 문헌과 첨성대의 입지 환경적 여건을 조사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첨성대에 대한 장소성, 외형요소(형식), 그리고 첨성대 조영을 통해 발현코자 했던 내재요소(내용)를 고찰, 해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연구사

첨성대를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천문대라고 처음 해석한 것은 1910년 이후 일본의 기상학자 와다유치(和田雄治)였다(박성래, 1997). 그러나 그가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그것이 첨성대(별을 쳐다보는

1) 단순한 형태상의 모양으로 불교에서의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 형태를 닮았다' 하여 불교적 점성물로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다소 설명력이 부족한 비논리적 접근 방법과 같은 것을 말함.

대)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과 역사책에 그 가운데를 통하여 하늘을 관찰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 이후 1962년 12월에 홍사준의 주제 하에 처음으로 첨성대가 실측되어 첨성대의 배치도와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전개도 등이 제작되어 보고되었고(홍사준, 1963), 전상운, 홍사준, 박동현과 박홍수(송민구, 1987) 등에 의해 와다유치와 같은 맥락에서의 천문관측설이 제기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 천문관측대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주장(남천우, 1987)이 제기되었다. 이들 중 제1설은 김용운의 주비산경설로서 “첨성대는 실제로 관측에 사용된 것이 아니며 다만 수학 및 천문학에 관한 당대의 권위서였던 주비산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축조한 상징적인 탑”이었다는 견해이다. 제2설로서 이용범의 수미산(須彌山)설로서 “첨성대는 천문관측과는 관련이 없으며, 다만 불교의 우주관인 수미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제단이었을 것”이라는 견해였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천문관측대설

천문관측대설은 첨성대가 오늘날과 같은 천문관측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첨성대의 형태와 구조를 천문관측과 연관하여 분석하고 주장하는 설이다. 천문관측설에서는 첨성대를 구성하고 있는 초석과 지대석(地臺石)의 대각선이 동지일출 방향과 일치하고 있고, 첨성대의 회전곡면은 일남중고도를 미리 알고자 하는 용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첨성대는 역법의 연구와 시간측정과 시보(時報)를 알기 위한 천문관측 용도의 조영물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의 근거로서 첨성대의 위치, 초석과 지대석, 정자(井字)석 그리고 회전곡면의 비례를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위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첨성대는 9 : 40 : 41의 피타고라스 정수해를 사용하여 천구(天球)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송민구, 1987). 다음, 회전곡면의 모선은 일남중고도를 미리 알고자 하는데 쓰이는 곡선으로 사용되었고, 회전곡면의 둘의 개수²⁾는 별들의 방위각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정자

(井字)석은 28, 29단은 방위각을 알기 위한 척도, 25, 26 단은 28, 29 단의 정자석에서 읽은 방위각을 옮기는 곳이고 19, 20 단 정자석의 대각선의 교점은 첨성대의 중심이며, 천구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4단의 윗면에 마루를 깔면 별의 고도측정이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박홍수(송민구, 1987)는 지자기학설(地磁氣學說)에 근거하여 첨성대가 극히 정확한 방위설계로 이루어졌음을 발표하고 정자석 위에 관측기를 설치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천문관측대설을 주장하였다.

2. 규표설

천문관측대설을 부정하는 첫 번째 주장으로는 첨성대의 내부 구조가 조잡하여 내부에서의 관측활동이 부적당하다는 점과 그 외부의 세련된 구조와 중국에서의 당대의 주공측경대(周公測景臺), 원대의 거대한 관천대(觀天臺) 등이 모두 규표로서의 기능을 위주로 한 관측대였음을 들어 첨성대도 규표(圭表, gnomon)로서의 기능을 위주로 한 관측탑이라는 견해이다(박성래, 1997).

3. 주비산경설

김용운이 주장한 주비산경설은 고대 중국의 대표적 수학서에 주비산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첨성대는 바로 그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신라 학자들이 그런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삼아 거기에 나타나는 비례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다(박성래, 1997). 이 주장의 핵심은 첫째, 첨성대 중북부에 설치되어 있는 창구는 출입구라고 생각 될 수 없다. 둘째, 그 전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하부는 방형(方形)이고 신부(身部)가 원형(圓形)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 즉 둥근 하늘과 방형인 땅의 모양을 상징하는 것이다. 셋째, 첨성대의 원형부(圓形部)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양이 주비산경에 나오는 칠형도(七衡圖)의 칠원(七圓)과 같다. 넷째, 원

2) 첨성대의 12단 출입구의 4개를 빼면 360개가 됨.

형부를 구성하고 있는 석재의 수가 366개이므로 1년의 날짜 수와 같다. 다섯째, 원형부와 정상의 정자형부(井字形部)를 합치면 28 층단이 되며 이것은 28수(宿)를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원형부의 제 1에서 제 6 층단까지의 각 층단석의 수가 모두 각각 15개 또는 16 개여서 그 수는 1년을 24절기로 나누었을 때의 각 절기의 일수를 나타내고 있다. 일곱째, 각 부위 규격의 측정치를 검토하여 보면 그 중에는 길이의 비율이 각각 $A : B = 5 : 4$, $C : D = 5 : 3$, $E : F = 3 : 1$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6개의 부분 A, B, C, D, E, F를 찾을 수 있으므로, 이것은 주비산경에서 나오는 변장이 3 : 4 : 5 비율의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장간(邊長間)의 비율과 원주율의 값을 상징하여 설계된 것이다.

4. 수미산(須彌山) 설

이용범의 수미산설 또는 제단설은 단적으로 '첨성대가 천문대가 아니다'라는 견해에서 출발한다. 이설의 논거의 핵심 중 하나는 출입구가 불편하여 도저히 천문대로서 사용될 수 없는 구조라는데 에 있다. 수미산설의 논거는 수미산이 불교의 상상의 영산(靈山)으로 우주의 중심인 바, 첨성대의 형태적 모습이 수미산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면에 기초를 두고 있다.³⁾ 수미산설은 7세기초의 신라는 불교가 크게 융성하던 시기이고 따라서 첨성대는 불교 영산의 모양을 본떠 세워진 불교적 용도의 제단이라는 설이다.

남천우(1987)는 이러한 주비산경설이나 수미산 설에 대해 첨성대의 기능과 구조, 형태, 등의 맥락에서 비판하며 첨성대가 천문대의 기능을 갖춘 조영물이라는 천문대설을 다시 강조하였다. 즉, 주비산경설이나 수미산 설은 모두 첨성대의 천문관측소로서의 역할, 즉 작업장으로서의 기능 검토 문제는 거의 도외시키고 첨성대가 실제 관측용으로 사용되기에는 매우 부적당한 구조라는 단정 밑에서, 첨성대가 지니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인 "첨성대 축조 시에 신라인들이

의도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라고 하는 정신적 측면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입장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첨성대의 구조와 기능 즉, 관측용 작업장 유무의 문제와 통로의 문제, 첨성대 형태의 문제 면에서 과학적인 검토 결과, 첨성대는 천문관측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건조되는 통상적인 건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Ⅲ. 첨성대의 구조 및 형태, 입지

1. 구조 및 형태

첨성대의 구조는 사각형의 초석 및 기단부, 원통형의 중앙부, 다시 4각형의 상층부, 등 크게 3단부로 나뉘어져 있다. 최하층 부에 있는 기단부는 변장(邊長)이 약 5.3 m, 높이가 약 0.4m 되는 정방형 기단이 2단으로 놓여져 있고, 중앙부는 높이가 약 0.3m의 잘 다듬어지지 않은 전석 모양의 돌들을 밑지름 4.93m, 윗지름 2.85m의 아랫부분이 넓고 윗부분이 좁은 원형으로 쌓아 올려 27 단층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는 지상으로부터 약 4.3 m 높이가 되는 중복부(中腹部)되는 지점에 가로 세로 각각 1m 쯤 되는 창이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이 창의 아랫부분 양측에 너비 약 15cm, 깊이 약 1.5cm되는 홈이 인위적으로 새겨져 있다. 또한 원통형의 19단과 25단에 해당되는 곳에 井자 모양의 격자형 틀이 각 2개소 걸쳐져 있다. 정상부에는 0.3m 높이의 다듬은 화강석을 2 단으로 쌓아 井자형을 이루고 있다. 전체의 층단수는 31단, 원형부의 높이는 9.1m, 전체 높이는 약 9.5m 이다.

첨성대의 기단 평면은 정 남을 기준으로 16도 좌회전한 방위를 향하고 있으며, 중앙부원통형 부분의 경우 중복의 창을 중심으로 아래가 12단, 그 위가 12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또한, 원형부의 각단의 석수(石數)는 11-18 개이며 제1단이 16개로 시작되어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각단

3) 수미산은 둘레에 4대주(大洲)가 있고, 구산팔해(九山八海)가 펼쳐져 있다. 수미산의 하계는 지옥이며, 수미산의 아래 부분에 인간계가 있다. 또 산의 중턱에는 사방으로 사왕천(四王天)이 있고 이를 지키는 것이 사천 왕이다.

4) 최하부의 기단부와 최상부의 井자단의 단을 합치면 아래 위 각각 14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국, 첨성대는 중복부의 개구부를 중심으로 전체가 이분(二分)되어 있다.

의 구성 석수는 감소되고 있다. 첨성대의 원형부를 구성하고 있는 돌들의 수는 모두 362개(박성래, 1997), 366개 또는 377개(남천우, 1987)가 된다⁵⁾.

2. 첨성대의 입지와 환경적 맥락

첨성대는 북위 약 $35^{\circ}49'53''$ 에 자리잡고 있으며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주시 인왕동에 소재 한다.

그 환경적 맥락을 보면 남동으로 인접하여 반월성이 있고 남, 또는 남서 방향으로 김알지의 시조림인 계림(鷄林)이 인접해 있다. 또한 서, 서북, 북의 3개 방향으로 인접하여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안압지가 있다.

첨성대의 입지에 대한 문제는 천문관측대설의 입장이나 재단 또는 상징적 조형물이라는 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상운이 주장하는 천문관측대설에서는 첨성대의 위치가 곧 천구(天球)의 중심적 위치로 파악하고 있다(송민구, 1987). 반면 정기호(1991)는 선도산 정상을 한 점으로 잡은 동서 축과 옥녀봉 정상을 한 점

으로 잡은 동지 일출방향의 축이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 첨성대가 입지 함으로써 첨성대를 중심으로한 일련의 대상들과의 관계성에서 신라왕도의 의도적인 축의 설정과 신라의 토착 신앙으로서의 동향문화적 성격 규정의 실마리를 풀고자 하고 있다

IV. 첨성대의 경관인식론적 해석

1. 첨성대의 장소론적 고찰

첨성대가 왜 '바로 그곳에 있게 되었는가', 라는 장소 결정에 관한 문제는 첨성대의 기능이나 역할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즉, 주어진 자연조건과 자연현상이 인위적 조형계획에서 의도된 모든 바를 충족시켜 줄 때 어떤 특정한 장소가 결정되며 그로부터 충족되어야 할 제 의도들은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내포되어 가고 이것은 결국 경관적 인식작용을 도출해준다(정기호, 1991)는 맥락에서 볼 때 장소적 특성은 경관이 지닌 의미를 해석해 주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장소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첨성대는 반월성이라는 궁성, 김씨 계의 시조림인 계림 숲, 그리고 김씨 계의 왕 또는 귀족들의 무덤인 고분군(古墳群)에 의해 4방으로 둘러싸여져 입지하고 있다. 김알지 신화와 관련된 계림은 하나의 신림(神林)으로 신라의 국호로 사용할 정도로 신라에서 중요한 의미(신성의 정치 종교적)를 지닌 숲⁶⁾이고, 주변에 집단 분포하고 있는 고분군 역시 김씨 계의 신라왕들의 무덤으로서 왕들이 하늘로 승천하는 신성한 지역으로 토착 신앙적 숭배의 대상(조세환 외 7인, 1997)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고분군과 숲이 연계하여 입지 한다는 것은 당연하면서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고분군과 숲으로 둘러싸인 첨성대 지역은 김씨 왕계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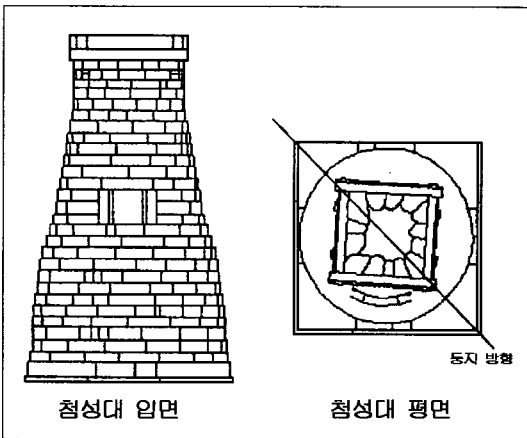


Fig. 1. The Elevation and Plan of Chumsungdae
출처: 송민구(1987), 한국의 옛조형의미, 서울:기문당 P.162, 186

- 5) 첨성대를 구성하고 있는 돌의 숫자가 이렇듯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각 연구자의 주장 방향에 맞추어 첨성대의 구조를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즉, 첨성대가 1년 365일의 천기와 관련이 있다는 '주비산경설'을 주장하기 위해 원통형 부분만을 계산한 것이 366개이고, 주비산경설과 전혀 상관이 없고 천문 관측용이란 주장을 펴기 위해 작은 보조 석재 및 상층부의 돌까지 계산한 것이 377개이다.
- 6) 고래로부터 숲은 우주의 중심으로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장소로 신성과 숭배의 대상이었다. 신라의 경우 박혁거세 왕이나 알영부인, 김알지 등의 왕들이 모두 숲 속에서 태어나는 신화를 가지는 것도 바로 숲의 토착 신앙적 신성스러움을 표현해주는 것 이상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한 제천의 토착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신성한 장소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계림 숲과 고분군으로 둘러싸인 침성대 지역 일대는 신라의 방리제(AD 467년)가 시행되면서 도로에 의해 분할되지 않고 원형대로 유지된(장순용, 1976) 것을 보면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다. (Fig. 2 참조)

침성대의 이와 같은 장소성과 관련하여 침성대가 불교적 내용의 조영물이기 보다는 토착신앙적 성격의 조영물임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검토의 근거로는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침성대에 대한 기록을 빼놓은 것⁷⁾(박성래, 1997), 또한 토착신앙적인 관점에서 침성대의 위치가 결정된 원인을 해석하는 과정



Fig. 2. The Surroundings of Chumsungdae
출처: 장순용(1976),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 P. 68

에서 신라의 전래소(傳來素)적인 동향(東向)문화가 침성대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⁸⁾(정기호, 1991)는 주장, 후술되는 침성대의 형태적 특성이 우물(井)과 유사하다는 점⁹⁾,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성대의 명칭에서 '별'은 동양에서는 토착 신앙적 의미¹⁰⁾를 지닌다는 맥락에서이다. 따라서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침성대가 왕실과 관련된 토착 신앙적 의미를 지닌 신성한 장소에 입지¹¹⁾ 한다는 것은 앞서의 논거에 더하여 침성대가 수미산이라는 불교적 상징 조영물이라는 주장에 대한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장소론적인 맥락에서의 또 다른 관점은 침성대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토착 신앙적 맥락과 함께 오히려 여성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토착 신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면 우선 침성대를 건설한 장본인이 바로 선덕여왕으로서 여성이고, 정기호(1991)의 연구에서 해석한 침성대의 입지 결정의 개념 관점에서 볼 때, 침성대를 동지일출방향으로 이어주는 경주 서쪽에 있는 옥녀봉(玉女峰), 침성대를 동쪽으로 이어주는 선도산의 여신인 사소성모(娑蘇聖母), 그리고 신유림의 선덕여왕릉 까지를 생각한다면 침성대 조영에는 여성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침성대가 선덕여왕의 재위연대를 상징하는 27단 높이로 쌓여져 신라 27대 왕을 상징(박성래, 1997)하고 있다는 견해는 선덕여왕이 여성적 특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침성대를 조영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 7) 침성대가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김부식은 불교와 민속적인 것은 가능한 한 제외한 역사를 썼고 일연의 삼국유사는 바로 그런 부분을 되살리려는 역사를 쓴 것이다. 그러나 침성대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에서도 불교와 연관짓지 않고 '선덕여왕 제위 16년에 침성대(瞻星臺)를 만들었다'라는 기록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어서도 침성대는 불교와의 관련성이 있는 조영물이라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 8) 이와 같은 논거 외에도 침성대의 명칭이 '별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동양에서의 별은 영성(靈星 : 농사와 관련성이 있는 별), 등에서와 같이 불교보다는 토착신앙과 관련성이 있는 신앙의 대상물이라는 점은 물론이고, 불교적 상징물인 탑과는 너무나 형태적으로 상이하다. 즉, 후술하겠지만, 침성대의 형태가 우물(井)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토착 신앙적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9) 침성대의 형태는 상부의 대좌부에서와 같이 우물(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井 자형의 부호는 안압지에서 발굴된 그릇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고, 우물은 박혁거세와 알영부인이 태어난 장소인 나정(井), 알영정(井)과 같이 토착 신앙적 요소이다.
- 10) 예를 들면 靈星은 농사와 관련된 별이며 신라의 영성제는 농사를 기원하는 제사로써 토착신앙과 관련성이 있다.
- 11) 침성대가 입지한 장소는 불교의 토착신앙 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석굴암, 불국사, 통도사, 등의 신성장소와는 내용적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침성대는 그 시대의 현행 왕이며 세습 김씨 왕 계의 탄생신화 및 승천의 장소인 계림 및 고분군에 의해 둘러싸여진 장소에 위치하는 반면, 석굴암 등의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김씨계 왕과의 관련성이 낮은, 그 몫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신성적 장소성이 낮은 지역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침성대 조영 후 30-40년 후에 불국사와 석굴암 등이 포함산, 남산 등의 여타의 토착신앙적 성격의 장소에 습합적 맥락에서 들어서게 됨을 볼 때, 그 이전 시대이며 보다 더 중요성과 의미가 있는 계림 및 고분군 지역에 불교적 맥락의 전 조물을 조영하였을 개연성은 재고될 부분으로 남는다.

첨성대가 여성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것으로서 그 시대의 사상을 들 수 있다. 첨성대 조영 시기는 농경의 발달로 말미암아 땅의 힘을 느끼는 시기였다. 즉, 이전의 천산(天山)사상에서 숭산(崇山)사상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었고, 당연히 천부지모(天父地母) 사상이 번창해 여자를 땅의 힘으로 생각하고 여성을 농경생산과 관련성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조세환 외 7인 1997).

2. 첨성대의 조영형식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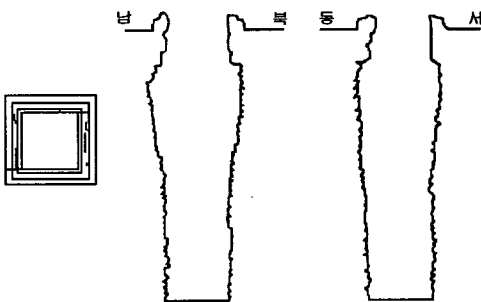
첨성대의 조영형식은 전체적으로 우물의 모양을 띠고 있다(Fig. 3, 4 참조). 첨성대가 우물의 형태를 가장 사실적이고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28, 29 단에 해당되는 상부의 대좌모양과 허리부분의 25, 26 단에서 나타나는 정자석(井字石) 2 곳이다. 대좌의 모양은 우물 정(井)자를 나타내고 이것이 우물의 입구가 되어 전체적으로 원통형의 우물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현존하는 신라의 재매정(財買井)이나 나정(羅井), 고구려, 백제의 우물의 형태(박경자, 1994)는 원통형의 지하부분 위에 지표 위로 '井'자 형의 방틀로 우물 틀을 짜서 만든 우물 모양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첨성대의 상부 대좌 부의 '井'자 형태와 동일하다. 첨성대는 '井'자가 갖는 의미 그대로 우물을 지상부에 올려놓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우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첨성대를 토착신앙적 신성의 장소에 높이 쌓아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그래

서 물이 솟아 나는 우물은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성시되고 있다. 신라에 있어서도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태어난 곳도 나정(羅井)숲이었고, 그 부인인 알영 역시, 알영정(閼英井)이라는 우물에서 태어났다. 이들 두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존재로 추앙 받았고, 따라서 이들이 태어난 고대 신라에서의 우물은 바로 신성함(경주국립박물관, 1995) 자체를 상징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우물이 신성한 건조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상은 이러한 우물은 나정 숲이나 알영 숲과 같은 바로 신성한 숲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정황에서이다. 이와 같이 첨성대가 신성한 숲과, 알영부인(여성)이라는 신적 존재, 우물 모양의 형태적 특성과 같은 이미지의 흐름은 바로 첨성대가 신성함을 나타내는 조영물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우물은 신성스러움과 함께 생명의 근원이고 풍요의 상징임과 동시에 여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명왕의 어머니는 물의 신 하백이었고(최인호, 1995), 박혁거세의 부인인 알영부인 역시 알영 우물에서 태어났다. 우물과 여성과의 관련성은 물이 갖는 생산과 풍요라는 이미지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볼 때, 우물의 형태적 특성을 갖는 첨성대는 신성스러움과 함께 생산과 풍요의 이미지와 연결됨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 예로서 고구려나 백제, 신라의 제기를 비롯한 각종 음식과 술을 담은 그릇에서 井 자형의 심벌이 새겨진 것(Fig. 6 참조)을 보면 우물과 농사, 그리고 풍요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우물의 형태를 지닌 첨성대는 지상으로 9.4 m 높이에 쌓아 올린 구조물로서 지하에 매설되는 일



재매정 평면도 재매정 단면도

Fig. 3. The Jaemaejung(The well of Shilla)
출처: 박경자(1994)우물, 환경과 조경, 제74호 P.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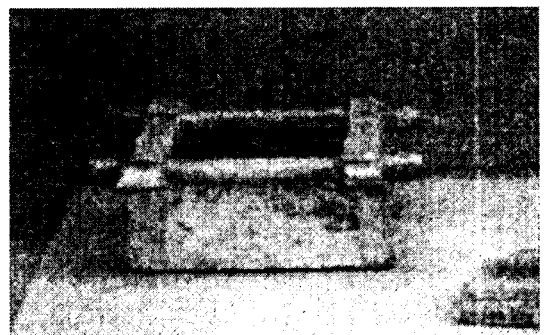


Fig. 4. An Earthen Ware of Well of Ancient
출처: 최인호(1995), 왕도의 비밀(3), 서울:샘터, P.14

반적인 우물과는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무엇을 ‘쌓는다’는 행위는 ‘높임’과 ‘승배’의 원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볼 때, 지상으로부터 높이 쌓아 올린 침성대는 ‘기원 행위’의 형태적 발로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단군신화나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그리고 신라의 2대왕인 차차웅, 등의 예에서 보듯이 고대사회는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정치적 현상을 보인다는 맥락에서 볼 때, 침성대와 같은 신성하고 기원적 의미를 지니는 건조물은 신성을 받드는 제전(祭典)이나 제단(祭壇)의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소기의 정치적 의미와 목적을 지닌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침성대의 조영 의미 해석

지금까지 침성대에 대한 장소론적 고찰과 침성대의 조영형식 맥락에서 볼 때, 침성대는 불교보다는 토착 신앙적 성격의 조영물로서 여성과의 연관성¹²⁾을 가지며 우물의 형식을 빌어 풍요를 기원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음을 논하였다.

침성대가 지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대에 별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할 때 침성대는 무엇보다 점성적이고 정치적인 조영물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점성을 통하여 나라 일을 점치고 제천을 행하는 다소 제정일치의 성향에 따른 제단적 기능의 조영물(정기호, 1991)로 생각할 수 있으며 천문학자 山本—淸은 동양에 있어서의 별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綱干善教, 1996)고 주장함으로써 침성(瞻星)의 별을 관측한다는 뜻은 오늘날과 같이 과학적 천문 관측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정적, 점성적,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침성대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두 가지 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침성대는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농사의 풍요는 정치적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농사의 풍요는 나라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인 동시에 정복국가 시대에 있어 군인을 배양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신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농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점성적 행사로서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영성제(靈星際)가 있었고 이 영성제를 지내는 제단으로서 영성단(靈星壇)을 만들었으며 지금의 침성대 자리에 영성단이 있었다(박성래, 1997)는 주장은 바로 침성대가 농사의 풍요 기원과 관련한 정치적 목적으로 조영되었을 개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농사의 풍요와 관련하여 앞에서 침성대의 형태가 우물(井)과 유사함을 논하였는 바, 우물의 형태를 빌린 것은 그 시대의 우물이 지니는 상징성, 즉 여성, 생산, 풍요와 이들의 기원(祈願)성과 관련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논거로서 안압지 발굴에서 나타난 남근(男根) 모양의 목조각과 (Fig. 5 참조)경주와 동시대에 일본에 존재하였던 나라(那良)시의 한 우물 발굴에서 안압지의 목조각과 거의 유사한 양물 조각이 출토되었다(최인호, 1995)는 점, 또한 최근에는 경주의 배수시설에서 석조각물의 양물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연못과 우물, 배수 시설이라는 모두 물과 관련된 시설 속에 남성의 성기가 들어가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물과 물을 여성으로 보았으며 그 속에 남근을 집어넣음으로써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토착 신앙적 의식을 가졌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남겨두고 있다.

침성대의 형식이 우물(井)이라는 평면적인 조형에 위로 쌓아올린 조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나 형태는 축적·저장의 의미와 함께 높이는 행위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또 ‘세운다’(臺)는 행위는 어떤 장소를 표시하는 일이며 원(圓)은 일체감 또

12) 침성대는 선덕여왕이라는 여성이 조영하였고 침성대가 갖는 여러 가지 여성과의 관련성은 정황(선도산, 옥녀봉, 선덕여왕릉의 유언, 우물의 형태, 알영정(井)과 알영 부인)에서 선덕여왕이 여성통치자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으로서 선덕여왕은 신라 최초의 여성 왕으로서 통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면, 높은 벼슬에 있는 비담과 영종 등이 647년에 여자임금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하여 명활산성을 점령하고 반란(경주상공회소, 1997)을 일으켰다. 선덕여왕은 이러한 여성 통치의 당위성과 권위를 신라의 성모인 娑羅聖母(선도산 여신)와 알영부인의 전례에서 찾고자 하였을 수도 있다. 특히 알영 부인은 박혁거세의 부인으로서 박혁거세 재위시왕과 함께 이성(二聖)으로서 추앙을 받았던 인물로서 사실상 여왕으로 대우받았다. 따라서 선덕여왕은 침성대의 형태를 우물과 연관시킴으로써 알영 부인이 우물에서 태어났다는 점과 이미 시조왕 때부터 여성 왕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그로 인하여 여왕 통치의 당위와 권위를 알리려고 기도하였을 개연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는 공동체감을, 그리고 정방형은 동서남북 또는 전후 좌우, 등 네 방향에 대한 기하학적인 '확정성' 또는 '확실함'의 기본형이 되어 조형을 이루는 것이다(정기호, 1986). 이와 같은 일련의 맥락에서 볼 때 침성대는 원통형으로 쌓아진 형태 즉 원(圓)+축(樂)의 형태로서 공동체적 높임과 기원을 의미하고 상단부에 높이 올린 정방형의 우물(井) 형태와 같은 원형들은 농사의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인간의 의식(儀式) 및 의식행위(儀式行爲)의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침성대 중간 부분 남향으로 있는 4 각형의 출입구에 대한 해석은 바로 풍요와 생산을 기원하는 제의식의 하나로 남근(男根) 조각을 던져 넣는 문(門)¹³⁾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돈다"는 행위는 의례적 행위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여 한 장소를 특정 지우거나 점취 개념을 이루게 됨으로써¹⁴⁾ 침성대에 대한 제의식 역시 선덕여왕을 비롯한 궁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침성대를 도는 형식을 취했을 것으로 사료된다¹⁵⁾.

둘째, 침성대는 김씨계 왕위 계승과 통치의 권위를 살리기 위한 의도를 지닌 조영물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침성대가 바로 경주 김씨의 탄생지인 계림 숲과 김씨계 왕 또는 귀족의 무덤인 적석목곽 구조의 고분군에 의해 둘러싸인 토착 신앙적 신성한 지역에 건립되었다는 점에 논거를 두고 있다. 즉, 김씨 계의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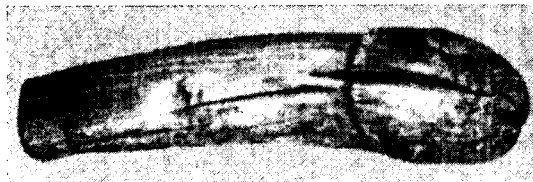


Fig. 5. The Wood Engraving Penis Excavaed in Anup-pond

출처: 최인호(1995), 왕도의 비밀(2), 서울: 샘터 P.6

- 13) 안압지나 일본 나라시의 우물에서와 같이 보통의 우물인 경우에는 남근 조각을 쉽게 넣을 수 있으나 침성대와 같이 국가적 맥락에서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조영물은 원형적인 형태 면에서 우물을 지상으로 높게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남근 조각을 우물 안에 던져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근 조각을 쉽게 던져 넣기 위해 중간 부분에 문을 만들 수밖에 없고, 우물이 곧 여성이라는 의인화와 관련시켜 본다면 이 문은 바로 여성의 옥합에 비유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4) 예를 들면 들판을 돌거나 사찰이나 탑 주위를 돌면서 행하는 신앙적 의례로, 또는 카니발이나 농악의 행사에서 시가나 마을을 도는 일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 15)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의하면 안동 지방의 어느 마을에 여자 귀신이 있었는데 이 여자 귀신에게 마을 여자들이 기원하면 마을이 평안하고 풍요로워 진다고 하였다. 이 여자 귀신을 위한 제단으로 여자들이 돌을 쌓아 놓고 그 주위를 손을 잡고 돌면서 기원하였다. 이 여자 귀신은 바로 신라의 '공주 귀신'이라 전하여 내려 오고 있음에 근거하여 볼 때 침성대를 중심으로 신라의 궁녀들이 돌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기원양식이 전래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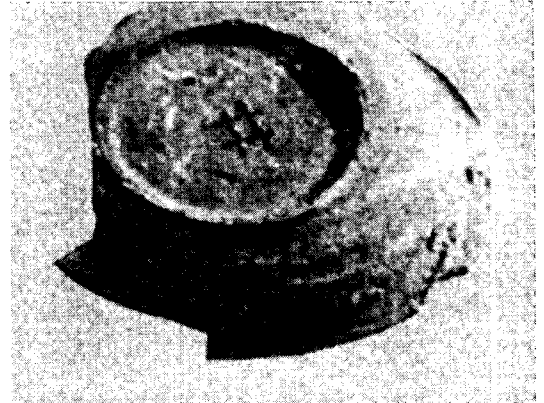


Fig. 6. The 井(Well) Sign Engraved on Earthen Ware of Shilla Dynasty

출처: 최인호(1995), 왕도의 비밀(2), 서울: 샘터, P.7

원, 김씨계 권위의 신성적 의미가 깃 든 숲과 무덤이라는 독특한 토착신앙적 장소성을 지닌 곳에 침성대(국가 안녕을 낚는 농사의 풍요 기원 목적의 조영물)를 조영함으로써 세습되는 김씨계 왕의 신성을 숭배하게 하고, 나아가 김씨계 왕의 강력한 세습적 왕권을 유지 또는 기원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방안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침성대 주변의 원형적 환경

그렇다면 과연 침성대 주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 우선 침성대가 천문관측건물의 부속 조형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천문관측 건물이 있었을 것을 주장하고, 침성대 주변에서 나오는 기와조각¹⁶⁾ 들을 그 증거물로 삼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까지의 설에 더하여 침성대가 입지한 자리는 아직 까지 확실한 위치가 밝혀지지 않은 신라의 금성(金城)터였을 것이라는 주장(김한배, 1993)¹⁷⁾이 있다. 그러나 침성

대가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농사 풍요의 기원, 김씨 왕계의 세습 통치의 당위성 내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점성적 내용의 조형물이라는 해석 차원에서 본다면, 첨성대 주변은 고분군과 계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논거로는 첫째, 중국의 주(周) 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경(詩經) 대아편(大雅編)의 영대(靈臺)¹⁶⁾에 관한 기록이 첨성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기록을 보면 영대(靈臺)내에 조성된 숲은 그 안에 사슴이 뛰여 놀았고 제례적 행사와 관련된 점성적(천문) 시설이 있었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중국의 영대(靈臺)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종교적 제례나 행사가 베풀어진 장소로 추정 받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점성적 의미를 지닌 첨성대 역시 계림이라는 성림(神林)이 바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에서 중국의 영대 형식이 신라에 전파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¹⁷⁾. 이것은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 점은 중국과 같은 이웃나라에서 볼 수 있고, 반대로 중국 등지에서 볼 수 없는 점이 우리에게서 보이는 맥락(정병모, 1995)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첨성대의 건립 연도가 선덕여왕 16년, 즉 647년이고 보면 첨성대는 이미 신라왕경이 조방제(469년 자비왕 22년)에 의해 방리형식으로 계획된 상태 이후에 건립되었으나, 항공사진을 기초로 한 신라의 조방구역울 보면 첨성대와 계림 숲, 고분군 지역

을 잇는 지역은 격자형의 도로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계림 숲은 첨성대가 건립되기 전에 이 지역 일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그럼으로써 계림 숲은 북쪽의 고분군 인접지역 까지 확장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V. 결론

본고는 역사물의 본체 및 본성을 밝히는 역사적 고찰의 한 방향으로서 하나의 대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그 대상 자체의 고찰과 그것의 경관적 고찰을 통한 외연성의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경관인식론적 해석 연구 방법을 첨성대에 적용시켜 첨성대의 장소성, 외재요소(형식), 그리고 내재요소(내용)를 해석하여 첨성대가 갖는 기능과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고대에는 제정일치, 즉 제왕, 종교, 천문이 일체가 된 사상이 지배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첨성대를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천문관측만을 위한 단순한 구조물로 보기에는 다소간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첨성대를 천문관측용이 아닌 불교의 수미산의 형태를 닮은 점성적 조영물로 불교적 제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첨성대라는 대상 자체는 물론이고 그 외연까지를 고려한 경관인식론적 해석 방법을 통해 고찰해본 첨성대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조영물로 분석되었다.

16) 이러한 기와장은 신전 건물의 기와장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직하다. 박혁거세를 모시는 신전이 나정(羅井) 숲 속에 마련되어 있다(경상북도, 1986)는 사실에서 보면 당시의 二層으로 추양 받던 알영 부인의 신전도 어딘가에 조영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첨성대가 여성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앞서의 각주에서 논의의 자료로 삼았던 바와 같이 선덕여왕의 여성왕 통치의 당위성을 표징하기 위해 시조 부인인 알영부인을 생각할 수도 있음직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첨성대를 조영하면서 인접한 지역에 알영 부인을 모시는 신전을 건립하였을 법하다. 즉, 나정 숲 속의 알영우물과 알 영부인의 탄생 신화, 계림 숲 속의 알영우물을 상징하는 첨성대와 우물의 주인(알영)을 모시는 신전은 상호 맥이 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사료로서 이와 같은 신전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점성적 내용(그래서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있음)임과 동시에, 토착 신앙적 요소(그래서 불교적 색채가 강한 삼국유사에는 기록이 빠질 수 있을 개연성이 있음)이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직하다.

17) 신라의 역사에 있어 금성은 AD 1-2세 기 전후에 나타나고, 반면 첨성대는 7 세기에 조영되었다는 사실에서 첨성대 주변의 환경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5세기 이후의 경주의 도시모습을 보면 첨성대 주변일대 계림 및 고분군 지역은 방리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 참조).

18) 周나라는 지금의 중국 陝西省 서안시의 남방 20km 지점인 풍수 부군에 도읍을 했는데, 이곳에는 靈臺라는 숲이 있었다는 것이 詩經 大雅編에 기록되어 있다. 이 靈臺에 관한 시에서 보면 靈臺는 조망시설을 중심으로 물고기와 새가 있는 연못과 사슴 떼가 노니는 수림을 갖고 있다고 함(윤국병, 1978).

19) 또, 영대(靈臺)는 신라와 같은 시대에 해당하는 당나라 장안성에서 부터 멀지 않은 곳에 존재함으로써 해서 신라가 당(唐)과의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첨성대 지역과 상호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첨성대는 외래소로서의 불교문화에 기인되었다기보다는 전래소로서의 토착신앙에 기반을 둔 조영물이었다. 즉, 김씨 계의 탄생지인 계림과 승천지인 고분군은 모두 김씨계 왕의 성지(聖地)로서 이들에 의해 남북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입지한 첨성대는 토착 신앙적 요소가 강한 조영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입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왕과 김씨계 왕의 권위, 통치 강화와 같은 내재요소(의미)였고 이들을 발현하기 위해 선도산, 옥녀봉, 선덕여왕릉과 계림, 고분군 등의 자연환경을 매개로 하여 첨성대를 입지 시킨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첨성대의 외재요소로서의 조영 형식은 우물의 형태를 모방하여 지상에 높이 쌓아 올림으로써 우물이 가졌던 여성과의 관련 이미지를 통해 '농사의 풍요 기원'이라는 의미를 발현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조영물로 해석되었다.

셋째, 이와 같은 첨성대의 장소성, 발현코자 했던 내용의 맥락, 조방제 상의 도로개설 상태, 그리고 중국에서의 사례에서 볼 때, 첨성대의 주변은 북쪽 고분군 지역까지 계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고고학 분야에서 연구가 어려운 고대사회의 종교 또는 정신적 차원의 연구에 이와 같은 경관인식론적 관점의 연구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조경학과 고고학간의 학제간 연구 틀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사료된다.

引用文獻

1. 경상북도(1986) 경주지역문화유적보존개발계획, 대구 : 삼영문화사. p. 333.
2. 경주국립박물관(1995) 경주이야기, p. 22.
3. 남천우(1987) 유물의 재발견, 서울 : 정음사. pp. 279-317.
4. 송민구(1987) 한국의 옛조형의 의미, 서울 : 기문당. pp. 156-157.
5. 전상운(1966) 한국과학기술사, 서울 : 정음사.
6. 조세환, 김규호, 김영환, 김창호, 여세규, 이강식, 정병모, 차동관 (1997) 경주문화의 이해, 대구 : 중문. pp. 311-312.
7. 최인호(1995) 왕도의 비밀, 서울 : 샘터. p. 196.
8. 경주상공회의소(1997) 도리천의 왕릉, 상의종합정보 제 110호, p. 19.
9. 김한배(1993) 한국도시경관의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경관과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8-90.
10. 박성래(1997) 과학유산을 통해본 신라인의 과학정신, 문화유산의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pp. 57-63.
11. 박경자(1994) 우물, 서울:환경과 조경 제74호. pp. 148-151.
12. 윤국병(1979) 조경사, 서울:일조각, pp. 147-148.
13. 장순용(1976)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8.
14. 정기호(1986) 자연과 인간의식과의 관계로 본 취락경관에서의 내적 의미에 관하여, 한국조경 학지, 14(2): 19-26.
15. 정기호(1991) 경관에 내제된 내용과 형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2): 21-31.
16. 정병모(1995) 민화와 민간연화-형성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좌 미술사 7: 101-23.
17. 홍사준(1963) 첨성대 실측보고, 고고미술 4(5): 162-163.
18. 網子善教(1996) 古墳と文化史, 東京 : (株)學生社. p. 91.